

세계 최대 e(이)스포츠 이벤트 '23년 롤(LoL)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다

11월 19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챔피언십 결승전...도시홍보, 관광유입 기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e스포츠 종목인 '리그오브레전드'의 세계 최강팀을 가리는 '2023 롤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이 11월 19일,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경기장인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개최된다. 롤은 2023년 9월 예정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e스포츠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올해 1월 10일 17시(현지시간) 미국 LA에 위치한 라이엇게임즈사는 롤의 2023년 시즌 개막을 알리며 '2023 롤 월드 챔피언십'을 한국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해 개최 도시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2023 롤 월드 챔피언십'은 국가별 리그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팀들이 선발되어 해당 시즌의 세계 최강팀을 가리는 대회로, 전 세계 e스포츠 대회 중 가장 많은 시청자 수 기록을 보유 중으로 2021년 기준, 7,386만 명이 동시 시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23 롤 월드 챔피언십' 서울 유치에 대해 지난해 5월부터 서울관광재단 및 한국이스포츠협회와 함께 주최사인 라이엇 게임즈,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 관계자들과 접촉하여 '2023 롤 월드 챔피언십' 개최 장소인 서울 고척스카이돔 사용, 대회 운영 방식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향후 대회 운영 시 ESG 실천, 중소기업 상생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

의했다.

또한 시는 이러한 대규모 이벤트를 계기로 더 많은 해외 관광객이 서울을 찾고,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벤트 연계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8일~9일 양일간, 대한민국 e스포츠의 최강자를 가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LCK)' 결승전이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서울시와 LCK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2만여 명의 관객이 참가하여 롤드컵을 향한 팬들의 사전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2만 명 규모의 e스포츠 팬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개최 장소를 지원하고 LCK는 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동행 프로그램 'e스포츠 문화투어'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손꼽히는 게임산업과 e스포츠 발전을 위해 게임 제작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 마켓 참가 지원 등 중소기업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김동욱 서울시의원이 제정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이스포츠 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42% 증액하는 등 우리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 지원을 다각화하고 있다.

시는 이번 롤드컵 공동 개최가 e스포츠 산업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주관사와 함께 e스포츠 문화투어, 인재 육성, 광화문 거리 응원 등을 통해 e스포츠 산업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고, '세계 게임 도시, 서울'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

울시가 e스포츠 산업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바로 이 시점에 '2023 롤 월드 챔피언십'을 유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시 e스포츠 산업이 도약하고 외국 관광객 유입이 증가해 관광 마이스 산업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국제행사를 서울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4년 만의 생활체육동호인 대축제! 화려한 개막 눈앞에!

28일 개회식, 30일까지 구미를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에서 열려

경북도에서는 올해 첫 전국 단위 체육행사인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제'가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구미시 민운동장을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 54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해 그동안 같고 닳은 실력을 겨룬다.

화려한 시작을 알릴 개회식은 28일 17시30분부터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리며 식전행사, 공식행사, 식후행사로 진행된다.

식전행사는 경북도 홍보영상을 시작으로 무용농악단, 천무응원단 등 구미시 문화예술단체의 공연과 함께 화합과 축제의 장을 활짝 펼칠 예정이다.

이어 공식행사는 개식통고, 선수단 입장, 국민의례, 환영사, 대회기 게양, 개회사, 축사, 동호인 다짐 및 주제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제 개회식 주제는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다.

경북의 자연과 첨단과학기술을 나타내는 반도체 회로와 낙동강 물결을 형상화한 무대가 배치되고, 개회식 열기를 고조시킬 주제공연은 k타이거즈, 구미시립무용단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레이저, 조명 등을 활용한 특수

효과와 불꽃놀이로 구성된 복합멀티 미디어쇼가 펼쳐져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경북의 미래상을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식후행사에는 송가인, 김희재, 조명섭 등 인기가수들이 출연해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회식 외부 행사장에는 활기찬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체험부스 및 관광·특산물·중소기업제품 홍보관 등을 운영하고, 구미시 일원에서는 국악 공연, 슈크박스 뮤지컬, 버스킹 등 문화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한편, 폐회식은 '더 찬란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30일 16시부터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되며 종합시상, 폐회선언 및 내년도 개최지인 울산광역시에 대회기가 이양되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대축전이 4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생활체육동호인뿐만 아니라 관람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환경부, 금강권역 대청댐, 가뭄 '관심' 단계 진입

생활·공업, 농업용수의 여유량을 감량하여 댐 용수를 선제적으로 비축

환경부는 충청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의 주요 수원인 대청댐(대전 대덕구, 충북 청주시)이 4월 22일 17시를 기준으로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금강권역 3곳 댐(대청댐, 용담댐, 보령댐) 중 가뭄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인 댐은 보령댐 1곳이었으나, 이번 대청댐의 가뭄단계 진입으로 2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선제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 대청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

입한 날부터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의 공급량을 최근 사용량에 맞춰서 감량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환경부는 대청댐 하류에 설치된 현도취수장의 생활·공업용수 계약량(94.5만㎥/일) 중 약 5%(4.7만㎥/일)를 전체 생활·공업용수 사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감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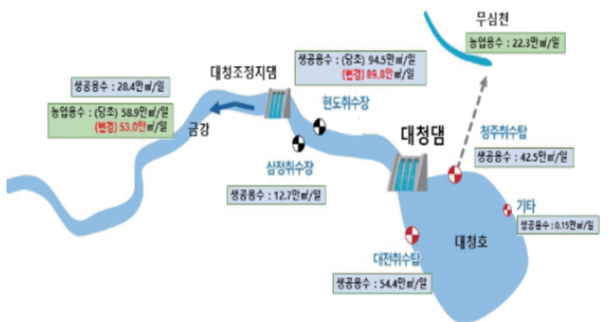
환경부가 최근 3개월(2023년 1월~3월)간 현도취수장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실제 취수량이 대청댐에서 하류로 흘러보내는 계약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현도취수장의 최근 사용량을 고려하여 실제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댐에 비축하는 것이다.

또한 대청댐 하류로 공급하는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과거 5년간 실제 사용량을 조사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들의 농업용수 사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농업용수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감량한다. 이번 조치로 월별로 배분된 농업용수의 약 10%(5.9

만㎥/일~28.3만㎥/일)를 댐에 비축하게 된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대청댐 가뭄 상황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댐 용수 관리를 강화한다"라며 "앞으로도 금강권역 3곳 댐(대청댐, 용담댐, 보령댐)의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제21회 경기마라톤 대회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오전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최된 '제21회 경기마라톤 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초록이 빛을 더하는 계절에 열리는 경기마라톤 대회는 마라톤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최고의 축제일 것"이라며 "일상 회복과 함께 아름다운 봄날 다시 열린 마라톤 축제에 함께한 마라토너 여러분께 반가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에 제약이 많았는데, 마침내 스물한 번째 경기마라톤 대회에서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기량을 겨룰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경기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모든 분의 건투를 빈다"라고 응원했다.

경기일보와 경기도육상연맹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수원7) 및 박옥분(더민주, 수원2)·김호경(국민의힘, 수원5)·이오수(국민의힘, 수원9) 의원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

조혜영/기자

유금렬 장흥군의회 의원,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촉구

장흥군의회 유금렬 의원은 지난 4월 19일 제28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축산물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유금렬 의원은 발언을 통해 우리군 농업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업의 경영악화가 더욱 가속화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한우 산지 가격은 경영비 상승 및 도매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송아지 입식이 감소 되면서 평년 309만원 수준의 암송아지 가격이 195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 인건비, 자

재값, 전기요금 등 생산 비용은 급등하는 추세이고, 최근 국제 곡물가 및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어 한우 사육 농가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에 발생했던 '소값 파동'이 재현되어 경영난에 몰린 축산 농가들이 줄줄이 파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농산물뿐만 아니라, 한우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가격 안정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대구시의회 '찾아가는 정책발굴단' 두 번째 운영!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열린 의정활동 및 다양한 정책발굴 지원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책지원팀은 시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4월 21일 시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를 시작으로 4월과 5월에 걸쳐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문화예술진흥원 등 10여 개소를 방문한다.

'찾아가는 정책발굴단'이란 용어 그대로 시 의회 정책지원팀이 소관 출연기관들을 직접 찾아가 운영상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및 건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를 맞은 '찾아가는 정책발굴단'은 형식적인 소관 기관 방문에서 벗어나 각종 건의 사항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회의 운영도 정형화된 보고 방식이 아닌 '브레인 스토밍(Brainstorming)' 방식으로 진행해 좀 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등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출연기관은 관할 상급부서에 적극적인 의견 타진이 다소 어렵다는 조직 생리를 고려해 직접 출연기관을 찾아가 현장의 가감 없는 목소



리를 듣고 있다.

작년 '찾아가는 정책발굴단'에 참여한 출연기관의 한 관계자는 "직접 현장을 찾아주시는 정책발굴단 덕분에 평소의 고충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창의적인 제안들도 나올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문화복지위원회에 전국 최초로 정책지원팀을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 3월부터 임기제 신규 정책지원관 8명을 추가로 공모, 선발해 5개 상임

위원회(기획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건설교통, 교육)에 각각 배치했다.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신임 정책지원관들이 다방면에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보유한 기존 일반직 정책지원관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대구시의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정책지원관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정책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안양시의회,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중간 점검 가져

안양시의회 조지영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지난 21일 안양시의회 의정실에서 최병일 시의장과 결산검사위원,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신규체육시설 예정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일반적으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경영할 경우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매입세액 환급 신고를 하며, 공연장(부대시설 포함) 같은 과세사업(대관, 공동제작 공연)과 면세사업(기획 공연, 교육)을 한 공간에서 경영하는 시설물은 공연장의 공급가액(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환급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개관전 시설물은 매출액이

없이 안분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워 매입세액 환급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며, 건립 후 환급 청구 시 경영청구기한 5년이 경과한 매입세액의 경우는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면적별, 공급가액별 안분비율을 산정 후 전문회계법인의 법률 자문을 통해 매출액 발생 전이라도 예정공급가액으로 우선 환급 신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지영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건립 중 건축물은 매출액이 없어 부가가치세 환급 비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건립 후 관련 부서 공무원의 보직 변경 등에 따른 인수인계 미흡으로 경영청구기한 5년 경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최병일 의장은 "부가가치세 환급 건 뿐만 아니라 이번 회계검사가 끝날 때까지 세입·세출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살펴 안양시의 재원이 시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8대 시의원 시절 결산검사 대표위원 당시 6억원을 환수 했지만 공무원의 포상과 인센티브제와 달리 결산검사 위원이나 의원에게는 인센티브 제도가 없었다며 이러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결산검사 위원과 관련 공무원은 이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환급 기한에 따른 신청가능 건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우용/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자치분권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합니다!

경상북도의회, 2023년도 청소년의회 교실 운영

경상북도의회는 도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2023년도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4월 2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실시하는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경주 황남초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병준 도의원(경주)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학생들을 격려했으며, 학생들이 도의원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3분 자유발언, 조례안, 건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스마트폰 중독을 조심하자" 및 "독도를 지키자"라는 주제의 3분 자유발언과 "초중고 학생 근현대사 역사교육강화에 관한 조례안", "초등학교 등교시간 연장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을 위한 문화재 관람 및 역사탐방 무료개방에 관한 건의안", "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한 건의안" 등 총 6건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다.

청소년의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안하며 열린 토론을 거쳐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과정까지 참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위를 생생하게 체험했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 "직접 원고를 작성하여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이 흥미로웠고, 떨리긴 했지만 도의원이 되어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8회 실시했으며,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



으로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이 일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하여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등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금년도에는 4월 21일부터 7월 18일까지 도내 14회 400여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운영하며, 하반기에도 수요교실을 실시하여 총 20회를 경상북도 교육청과 함께 의회교실을 확대 운영

할 계획이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미래 꿈나무 학생들의 청소년의회 교실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주의 방식을 직접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큰 꿈을 펼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행인 · 최수진 · 편집국장: 최재은 · 부회장: 박유석 ·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경 제 부: 태선 (112)	문 화 부: 태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 회 부: 태선 (113)	부 통 산 부: 태선 (117)
	경 제 부: 태선 (114)	요 기 니 언 부: 태선 (118)
	스 포 츠 부: 태선 (115)	지 방 부: 태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한양도성의 북문을 아시나요?' ... 한양도성박물관 '숙정문: 폐쇄된 성문을 열다' 개최

'한양도성의 북문을 아시나요?' ... 한양도성박물관 '숙정문: 폐쇄된 성문을 열다' 개최

서울역사박물관은 2023년 한양도성박물관 상반기 기획전 '숙정문: 폐쇄된 성문을 열다'를 4월 25일(화)부터 9월 10일까지 한양도성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한양도성박물관에서는 2017년부터 매년 도성의 여덟 성문을 주제로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그 일곱 번째 전시로 한양도성의 북문(北門) 숙정문(肅靖門)에 대한 전시를 준비했다.

전시는 '폐쇄된 성문', '숙정문과 기후 의례', '다시 열린 성문' 등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폐쇄된 성문' 부분에서는 한양도성의 정북(正北)을 지키는 문으로 건설됐던 숙정문이 폐쇄된 이유와 이후 달라진 위상 및 성문 관리·운영 방식의 변화 등을 소개한다. 옛 숙정문의 모습을 묘사한 '도성

도(都城圖)', '한양도(漢陽圖)' 등의 고지도와 각종 문헌 자료들이 전시된다.

'숙정문과 기후 의례' 부분에서는 조선시대 가뭄과 홍수를 막기 위해 치러졌던 기우제(祈雨祭)와 기청제(祈晴祭)를 통해 숙정문의 역할을 살펴본다. 기우제 및 기청제 예법과 절차를 규정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비롯하여 '문헌통고(文獻通考)', '향산문집(響山文集)' 등의 유물과 관련 영상들이 함께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다시 열린 성문' 부분에서는 해방 이후 한양도성의 보수·복원 과정에서 문루 재건과 함께 복원되고 시민에게 개방되기까지 현대사 속 숙정문의 변화를 소개한다. 숙정문 복원 및 개방과 관련된 각종 문서와 도면

들이 함께 전시된다.

숙정문은 조선 초 한양도성의 북문으로 건설됐지만, 오랜 시간 폐쇄되어 있었던 까닭에 실제 성문의 역할은 하지 못했던 문이었다.

그러나 숙정문은 농업이 국가 경제의 근본이었던 조선에서 강우(降雨)와 관련된 의례를 행함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문이었다. 나라에 가뭄이 심하거나 장마가 지속될 때 옛 조상들이 찾았던 풍수적 해법에는 항상 숙정문이 있었다.

기획전을 연계한 특별 강연도 운영된다. 5월 12일과 5월 19일의 2회차로 진행되며, 기획전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별 강연 프로그램은 숙정문을 비롯하여 한양도성 백악구간과 낙산구간을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답

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신청으로 2주 동안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며, 4월 27일 15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3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김용석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옛 조상들의 삶 속에서 확인되는 비와 숙정문의 관계를 통해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숙정문에 대해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평일 및 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역사박물관 누리집 혹은 한양도성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광수기자



서초구, 주요 대외평가서 최우수평가 연달아

서울 서초구의 정책들이 대외에서 연이어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SA등급)를 획득한 데 이어, '서리풀원두막'으로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최초 및 최고 사례로 선정 받았다.

우선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 주관한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7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를 획득했다. 또, 민선8기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취임 이후 공약 실천계획 평가에서 받은 첫 최우수 등급이다.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는 전국 226개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을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갈충성 ▲민주성 ▲투명성 ▲공약일지도 분야로, 전체 35개 세부 지표의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총 5단계 등급(SA, A, B, C, D)으로 분류하여 총점 90점 이상을 SA등급으로 선정했다.

이에 구는 주민이 참여하는 '민선8

기 주민정책평가단' 구성과 내실 있는 실천계획 수립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라는 비전 아래 8대 규정목표인 ▲안전한 일상 ▲깨끗한 환경 ▲숨쉬는 문화 ▲미래를 위한 보육과 교육 ▲민생경제와 청년일자리 ▲약자와의 동행 ▲도시인프라 조성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토대로 총 74개의 공약 이행계획을 담았다.

민선8기 취임 이후 구는 주민숙원 등 대규모 공약사업에 대해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약사업으로는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추진 ▲GTX-C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구정사 복합개발 연계 추진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4차산업시대 청년 인재 양성 및 취·창업 지원 ▲양재 R&D 혁신센터 지정 (AI미래융합혁신지구) 등이다.

이와 함께 주민 일상을 세심하게 보살피는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에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에서 '서리풀원두막'이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인 사례를 발표한 것으로 최초·최고 동시 선정된 기관은 구가 유일하다.

'서리풀원두막'은 2015년 전국 최초로 서초구에서 선별 고정식 그늘막이다. 구는 여름만이 아니라 계절별로 다양하게 활용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봄가을에는 꽃으로 장식해 도시미관을 개선했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변신해 훈훈한 연말연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약실천계획서를 토대로 체계적인 구정운영을 펼치겠다."면서 "아울러 서리풀원두막 등 창의적 혁신을 통해 주민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침수피해 막는다' 금천구, 풍수해보험료 및 침수 방지시설 지원

금천구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침수 취약가구에는 침수 방지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민간 7개 보험사와 행정안전부가 약정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금천구는 총 보험료의 70%~92%까지 지원한다. 가입자는 가입 기간 내 태풍, 호우, 홍수, 지진 등 풍수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1년을 기본단위로 하고 장기계약 시 할인이 적용된다. 가입자를 대상으로 침수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

족)은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저지대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소규모 상가 대상으로는 물막이판 1,100개와 역류 방지시설 400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설치를 원하는 구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금천구청 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이 접수된 현장을 방문해 설치 필요성과 수량을 결정한 후, 조건 충족 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침수피해 발생 시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돌봄공무원을 배치한다. 돌봄공무원의 기본임무는 상황전파 및 대피 안내, 침수 방지시설 점검 등이다.

올해 돌봄서비스 대상은 재해 취약가구 57가구와 일반관리 가구 1,081가구 총 1,138가구로 구성했

다. 재해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거안전 취약주택 실태조사 결과로 선정했으며,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가구(16), 어르신 가구(32), 아동 가구(9)다. 일반관리 가구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의 피해를 입은 가구다.

재해 취약가구에 대해선 '돌봄공무원'과 통반장 등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동행파트너'를 지정하며, 일반관리 가구에 대해선 '돌봄공무원'을 지정해 돌봄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침수피해 대책을 추진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영등포구, 1만여 개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 풍족한 도시 만든다

영등포구가 올해 지역 일자리 1만 2,016개 창출과 고용률 66.5% 달성을 목표로 사업비 1,178억 원을 투입해 190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에 따라 '2023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해 구 홈페이지와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정보 네트워크에 공시했다.

구는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 세부계획을 공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시된 내용은 민선8기 종합대책(2023년~2026년)과 연계하여 2023년 일자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구는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일자리 목표는 고용률

66.5%(청년 고용률 47.5%, 여성 고용률 52.1%), 취업자 수 20만 4,111명, 상용근로자 수 13만 3,057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49만 598명이다.

구는 4대 추진 전략으로 ▲4차 산업 분야 등 청년 취·창업 지원 통한 핵심인재 양성 ▲고용 취약계층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지역 자원 활용한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연계 ▲중·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도약 지원 및 노동복지 증진을 수립했다. 아울러 41개 대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190개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1만 2,016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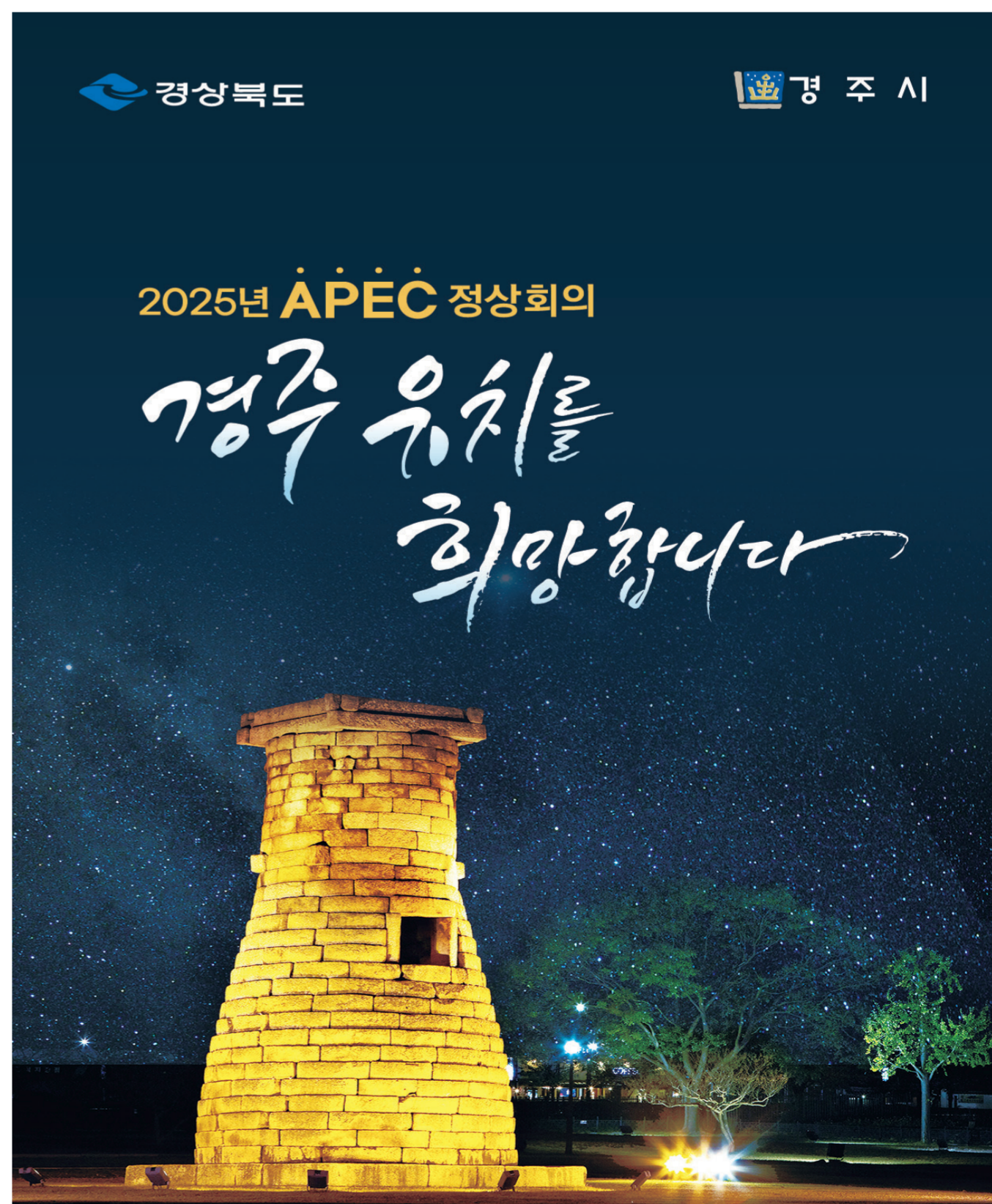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직접 일자리(112개) ▲직업능력 개발 훈련(6개) ▲고용 서비스(3개) ▲고용장려금(4개) ▲창업지원(5개) ▲기타(2개) 사업을 통해 1만 921개 일

자리를 창출하고, 민간부문에서는 ▲민간위탁 및 출자·출연기관(58개)을 통해 1만 95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덧붙여 구는 장기적으로 문래동을 비롯한 준공업지역, 여의도 금융허브 등 지역 산업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영등포형 상생 일자리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는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도시 경쟁력에 활력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박상준 일자리정책과장은 "최근 물가 상승 등 경기 침체로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구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힘을 보태겠다"라며 "청년, 어르신, 중장년 등 연령별, 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촘촘하게 세워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가 넘치는 미래도시 영등포 구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경상북도 경주시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위치를
희망합니다

용인특례시, 축구장 15개 규모 통삼근린공원 16년 만에 시민 품으로

이상일 시장, “시민들과 주민들에게 힐링 선사하는 최고의 공원으로 거듭날 것” 강조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갈동 통삼근린공원이 16년 만에 완공돼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상갈동 464번지 일원 10만7190㎡(3만2482평)에 모험 놀이터와 바닥분수, 시니어 운동 마당 등을 갖춘 통삼근린공원을 개장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공원 전방 데크에서 열린 개장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운봉 용인특례시의회 부의장, 김민기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황대용 통삼근린공원 공원화추진위원장,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

다.

통삼근린공원은 지난 2008년네 공원조성사업을 시작, 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실효 위기에 처했으나 시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시민 누구나 찾아와 힐링할 수 있는 도심 속 녹색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시는 통삼근린공원이 16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번 개장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시공사인 서원건설(주)과 아림조경(주), 통삼근린공원 공원화추진위원회, 용인문화재단이

후원했다.

황 위원장은 “이렇게 멋진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큰 도움을 주신 시 관계자들, 힘을 모아주신 수많은 주민들, 시·도의원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렇게 멋진 공원이 조성되어 너무 기쁘고 주민들과 함께 이 공간을 우리 집 정원처럼 소중히 여기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원 조성 과정에서 많은 우려곡절이 있었지만 이렇게 멋진 공원이 조성되어 시장으로서 너무나 기쁘다”라며 “약 3만3000여평의 이 공간이 상갈동 주민을 비롯한 용인시민의 건강증진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힐링 공간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기구도 더 갖추고, 예쁜 꽃들도 많이 심어 전국에 내놔도 손색없는 최고의 명품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원에는 용인특례시 공식 캐릭터인 3m 크기의 조야용 애드벌룬 조형물이 설치됐고, 상갈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도 전시됐다.

용인문화재단의 버스킹 공연과 마술쇼, 버블쇼 등의 다양한 행사가 열려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고, 풍선아트와 페이스페인팅, 목재문화

체험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 행사도 마련돼 가족 단위 시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시민 1만여명이 공원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 2021년 말 토지보상비 630.5억원, 설계비 2억원, 공사비 56.5억원 등 총 689억원을 투입해 통삼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시작했다.

조경공사를 통해 느티나무 등 교목 463주, 관목 2만2180주, 초화류 11만9000본을 식재해 시민들이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이날 수지구 성북동 성서근린공원에서 시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대왕참나무, 메타세콰이어, 왕벚나무, 이팝나무 36주를 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특별한 사연을 담은 표찰을 달았다.

시민들과 나무 심기에 동참한 이 시장은 “성서근린공원은 오늘 시민들과 함께 심은 이 나무로 인해 더욱 사랑받는 공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오늘 행사에 직접 참여해 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더 멋진 공원으로 잘 가꿀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정부에 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건의’

탄천 14개 교량 긴급정밀안전진단 결과 발표

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건의

탄천 14개 교량 긴급정밀안전진단 결과 발표

기자회견

2023년 4월 24일 10:30

신상진 성남시장은 24일 정부에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신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한누리실에서 분당구 관내 20개 중 14개 교량에 대한 긴급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성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지난 18일 기자회견 당시 수내교, 불정교, 금곡교, 궁내교 4개 교량에 대해 보도부 완전 철거 후 재시공을 발표한 바 있다.

21일 나온 분당구 탄천변 14개교 긴급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C등급(양현교, 황새울보도교, 신기보도교)이 3곳, D등급(사송교, 야탑교, 하탑교, 백궁보도교)이 4곳, E등급(방야교, 서현교, 백현교, 돌마교, 미금교, 구미교, 오리교)이 7곳이다.

시는 ▲사송교, 야탑교, 하탑교, 방야교, 서현교, 백현교, 돌마교, 미금교, 구미교, 오리교 이상 10개 교량은 보도부 완전 철거 후 재설치,

▲신기보도교, 백궁보도교는 캔틸레버 제거 후 사용, ▲양현교, 황새울보도교는 경량보도 설치, 상수관 시설 등의 조치 후 보수·보강 후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22일과 23일 백현교와 서현교를 우선 통제했으며, 24일 미금교, 구미교, 오리교, 25일 방야교, 돌마교, 하탑교, 26일 사송교, 야탑교, 궁내교, 27일 백궁보도교를 순차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분당을 포함한 1기신도시 기반시설은 정부 주도하에 건설됐고, 비록 30여년이 지났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역할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분당구 탄천 횡단 교량 20곳 중 17개소 보도부를 재시공하는데 약 1,5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데 지자체의 능력만으로는 신속한 복구가 불가능하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성윤/기자

부천문화재단, 부천시 시 승격 50주년 '공연 페스타'

부천시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한 공연 축제가 시민들을 찾아간다.

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은 6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 한 달간 북사골문화센터와 부천시민회관에서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는 ‘부천시 시 승격 50주년 기념 공연 페스타’를 연다.

공연은 총 6편으로 ▲0~24개월 영아와 양육자를 위한 음악 공연 ‘0세 힐링 콘서트’ ▲故 김광석의 노래를 소재로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팀인 밴드 ‘바람’이 선보이는 뮤지컬 ‘바람으로의 여행’ ▲프로젝션 맵핑(물체의 표면에 영상을 투사하는 예술)을 이용한 미디어아트극 ‘폴리팝’ ▲여성의 음악을 가진 남성 가수로써 가혹한 운명을 살았던 파리넬리의 삶을 그린 뮤지컬 ‘파리넬리’ ▲‘브라소닛 빅밴드’의 연주에 ‘엠비규 어스댄스컴퍼니’의 춤을 더한 융복합 공연 ‘바디 앤 보이스’ ▲경전 ‘티벳 사자의 서’를 모티브로 창작한 오리엔탈 판타지 뮤지컬 ‘바르도’ 등이다.

공연과 연계한 여러 무료 행사, 공연 전후의 짧은 짬짬이 공연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국비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여러 우수 공연을 포함해 구성했다.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부천시민 대상 관람료 반값 할인도 운영한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청소년에게 일부 공연에 2만 원을 지원하는 ‘부천아동청소년 공감티켓’,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합회의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과 연계해 객석의 30% 내외를 문화소외계층에 제공하는 문화나눔 ‘공연함께보기’ 등 함께 추진해 장벽 없이 누구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다.

예매는 4월 24일 오전 11시부터 미디어아트극 ‘폴리팝’을 시작으로 부천문화재단 누리집과 인터파크티켓에서 할 수 있다. 공연별 예매 시작일은 제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월 30일까지 미리 예매하면 관람료 3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윤용민/기자

'지속가능한 관광' 광명형 공정관광 팸투어에 시민 관심 높아

숲 해설, 패브릭아트, 공정무역 커피 등 사회적경제 기업 체험 위주로 마련

지속가능한 관광을 도모하는 ‘광명형 공정관광 팸투어’가 ‘2023년 빛나는 나를 만나는 공정여행’을 주제로 6월까지 진행된다.

공정관광은 광명시 사회적경제 기업이 주체가 돼 광명지역의 문화, 역사, 물적·인적 인프라를 연결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문화와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의미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우리 시의 자연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사회적경제와 지역 소상공인, 지역공동체 등을 발굴하고 연결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곳곳에 숨은 보물들을 소개하고 울림을 전달할 수 있도록 광명시만의 특화된 여행브랜

드를 만들어 광명형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공정관광 팸투어는 오는 6월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되며, 각 회당 20여 명씩 1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정관광 팸투어는 ▲도덕산 공원 숲 해설 ▲예술협동조합 ‘이루’ 패브릭아트 체험 ▲마을기업 ‘협동조합담다’ 점심식사 ▲사회적경제 홍보 전시관인 더가치출 방문 ▲‘보나카페’ 공정무역 커피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공정관광 팸투어는 지난해 11월 시범운영을 거쳐 2년 차로 초기 단계임에도 올

해 참여자 모집이 4시간 만에 마감되는 등 시민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진행된 1차 공정관광은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센터 관계자, 시민과 기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설레봄’을 테마로 진행됐다.

이날 팸투어에 참여한 한 시민은 “오늘 공정관광을 통해 도덕산 자연도 즐기고 재밌는 체험도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라며 “광명시 공정관광이 더욱 활성화되어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용민/기자

시흥시, 문화슬세권에서 낭만 가득한 '목감하우스콘서트' 즐겨요

시흥시가 오는 26일부터 10월까지 ‘문화슬세권’인 목감아트하우스27에서 문화가 있는 날 ‘목감하우스콘서트’를 개최한다.

‘문화슬세권’이란, 슬리퍼와 역세권의 합성어로 편한 복장으로 15분 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접근성이 높은 문화 생활권을 뜻한다.

‘목감하우스콘서트’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원도심 지역의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누리고, 일상 속에서 활력을 찾게 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4월 26일 열리는 ‘목감하우스콘서트’의 첫 번째 공연팀은 ‘별이 진다네’, ‘웬지 느낌이 좋아’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으며 음악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포크밴드 ‘여행스케치’

와 매력적인 목소리의 시흥문화홍보대사 ‘고양이용사’가 출연해 가슴 따뜻한 연주로 감성 충만한 저녁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야외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시민들이 직접 돛자리나 캠핑 의자를 챙겨와 함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피크닉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돼 시민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공연은 5월 31일, 6월 28일, 8월 30일, 9월 20일, 10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별도의 관람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입장할 수 있으며, 우천 시에는 건물 1층 열린우리들공간에서 콘서트가 진행된다.

신우용/기자

제12회 오산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19개 종목 7,300여명 시민들이 열띤 경쟁 펼쳐

오산시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2023 제12회 오산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오산종합운동장 등 관내 체육시설에서 시민들의 열띤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오산시와 오산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종목별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코로나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대규모 체육행사로 축구 등 19개 종목, 7천3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펼쳤다.

개회식은 지난 23일 오산종합운동장에서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아시아 최대규모의 합합 챔피언십에서 한국 최초 1위를 달성하고 현재 미디어 플랫폼 틱톡에서 380만 팔로워를 보유한 ‘아너브레이크즈’가 맨스뮤지컬 작품 ‘비스쿨’의 한 장면을 보여주며,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어서 오산시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오산시 태권도 시범단



의 역동적이고 멋스러운 태권도 시범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또한 오산시 체육을 빛내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18명이 오산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오산시체육회 권병규 회장은 “올해로 제12회를 맞은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오산시민의 스포츠 종합 축제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체육인의 열기가 뜨겁다”며, “시민들에게 체육 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나아가 시민

체력증진과 체육의 활성화 및 저변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회장으로서 감회가 새롭다”며, “참여하신 선수 모두,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과 팀워크를 마음껏 발휘하고, 페이스플레이를 통해 값진 승리를 거두길 바라고,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새로운 일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시현/기자

2023 0426 pm7:30 WED

나월의 목감하우스 콘서트

LINE UP

고양이용사(시흥문화홍보대사) 여행스케치(포크밴드)

목감아트하우스27 야외마당

*본 공연은 별도의 예약없이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우천시 건물 내 열린우리들공간에서 진행됩니다. *도자관와 관람의자를 갖고와서 즐길 수 있는 피크닉 콘서트입니다. 간단한 당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문의 | 목감아트하우스27 031-487-8827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2023 성남 '안성선수단' 출정식 개최



안성시체육회가 지난 20일,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2023 성남”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건승을 위한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기도체육대회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성남시에서 개최되며 안성시는 육상, 수영, 축구, 테니스 등 18개 종목에 267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이날 출정식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안성시의회 의장, 시·도의원과, 안성시체육회 임원진 및 종목단체장, 출전선수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필수를 다졌다.

우수종목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최된 출정식은 개회식, 단기수여, 체육회장 격려사, 안성시장 및 안성시의회의장 축사, 출전선수단 소개 및 각오, 선수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같고 닮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시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하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모든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양시현/기자

경기도, 카자흐스탄 국제 의료관광박람회 9회 연속 참가. 상담 실적 1천400건

도, 카자흐스탄 국제 의료관광박람회에 9회 연속 경기도 의료 홍보 공동관 운영

경기도가 중앙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의료관광·산업 행사인 ‘카자흐스탄 국제 의료관광박람회 (KITF-Kazakhstan International Tourism Fair) 2023’에 9회 연속 참가해 상담 실적 1천400건을 거두는 등 도내 우수 의료기관을 알렸다.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개최된 KITF 2023은 카자흐스탄 경제 중심지인 알마티시 아타켄트(Atakent) 전시장에서 개최됐다. 박람회 기간에는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및 터키 등 유럽 지역 관계자까지 몰렸다.

이번 경기도 의료 홍보관은 박람회 회장 내 ‘한국 의료-경기도’(Korean Medical-Gyeonggido)를 주제로 한 부스를 꾸렸다. 도는 코로나19로 박람회 사업이 일시 중단된 2020~2022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9회 연속 참가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KITF 박람회 홍보관 사업에 참여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의료기관 10개소(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분당차병원, 지샘병원, 세종병원, 부천우리병원)가 참여해 경기도 의료기술을 알리는데 총력을 펼쳤다.

박람회 기간 약 2천 명이 경기도 부스를 방문했고 경기도 의료기관과 에이전시 간 상담 실적 1천400건, 업무협약(MOU) 체결 45건 성과를 거뒀다. 이에 향후 한국 방문을 희망하는 환자 수는 38건으로 박람회 참가 사업 중 역대 최대의 실적을 거두었다.

박람회 기간 참여 의료기관 중 4개소(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지샘병원)는 알마티시내 의료기관에서 ‘메디컬 경기 현지 협진 환자 상담회’를 진행했다. 신경외과, 혈액종양내과, 가정의학과 분야 교수진과 카자흐스탄 환자 38명 간 상담을 실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다시 카자흐스탄 국제 관광박람회를 참가하게 됐다”라며 “환자 유치 거점 지역인 카자흐스탄을 발판 삼아 국제 의료사업이 제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2년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와 보건의료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아스타나시, 악튜빈스크주, 아르몰라주, 망기스타우주 등 카자흐스탄을 발판 삼아 국제 의료사업이 제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왔다.

2011~2022년 카자흐스탄 의료인 248명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를 진행했으며, 그 외 국제 의료학술대회 개최와 해외 의료 마케팅 홍보 사업 등 카자흐스탄과 지속해서 교류했다.

조혜영/기자

수원시·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정책 수립·연구에 힘 모은다

수원시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정책 수립·연구를 위해 힘을 모은다.

수원시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은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도시·환경 정책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도시·환경 정책 발전을 위한 장기비전 수립, 공동연구에 협력하고,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수원시를 테스트 베드(시험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포럼·세미나를 공동개최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전문교육에 수원시 공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대학원장, 송영근 학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순진 환경대학원장은 “수원시의 여러 사업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다루는 것들이 접점이 많다”며 “수원시가 생태도시·미래도시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어떤 도시와 견줘도 앞서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수원시와 도시 정책을 함께 고민하며 미래를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해 달라”며 “환경대학원과 수원시가 결합해 멋진 결과물을 많이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1973년 설립돼 올해 50주년을 맞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도시재생, 지능형도시(스마트도시) 구축 등 지역 현안부터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차원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교육·연구를 수행한다.

조혜영/기자

고양시, 고양국제꽃박람회-행주가예술이야 기획 시티투어 운영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고양국제꽃박람회-행주산성 왕복운행

고양특례시는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고양국제꽃박람회장과 행주산성을 연계한 고양시티투어 기획코스를 운영한다.

이번 기획코스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열리는 ‘고양국제꽃박람회’와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열리는 ‘행주가(街) 예술이야(夜)’를 연계한 코스로 일산호수공원의 꽃과 행주산성의 밤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기획코스는 17시에 정발산역 2번 출구 고양관광정보센터에서 출발해 고양국제꽃박람회장(MBC일산드림센터 빨간 조형물 앞) 앞을 지나 화

정역을 거쳐 18시에 행주산성에 도착한다. ‘행주가(街) 예술이야(夜)’를 즐긴 후 21시에 행주산성에서 다시 출발해 21시 30분 고양관광정보센터로 되돌아오는 코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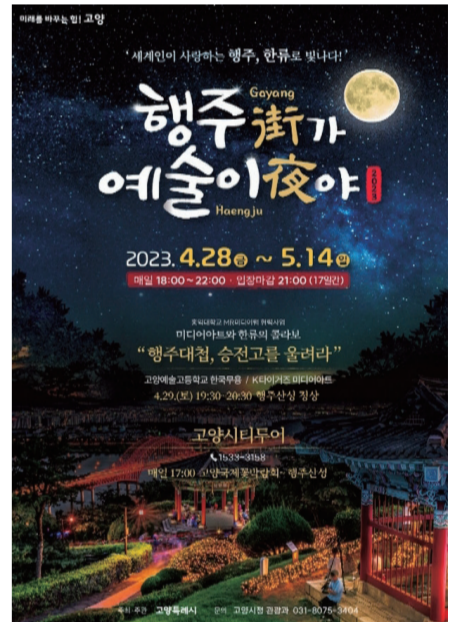
관광지의 풍성한 이해를 도울 시티가이드가 동행하며, 요금은 3000원으로 고양시티투어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기획코스로 구성된 고양국제꽃박람회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4년 만에 일산호수공원에서 개최된다. 행주산성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행주가(街) 예술이야(夜) 축제는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매일

18시부터 22시 사이에 열린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입장권 사전 예매를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국제꽃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양시티투어는 가이드와 함께 버스를 타고 고양시 관광지를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행사별 기획 코스 외에도 매주 금·토 10시~16시, 일요일 10시 30분~16시 30분 각각 다른 테마의 정기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고양시티투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영기/기자



Goyang

2023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고양국제꽃박람회

일산호수공원 Ilsan Lake Park
2023.4.27-5.8

생활 속의 꽃
Flower in the Life

재단 고양국제꽃박람회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

경북도,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 나무심기 행사 동참

울진 대형산불 피해지역 산림생태복원사업 시작해

경북도는 21일 지난해 산불피해지인 울진 북면 상당리 산 6번지 일원에서 개최된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 나무심기 행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섭 산림청 차장,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박형수 국회의원, 울진군수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피해지 인근에서 수집한 종자로 생산한 신갈나무와 자생식물 등 약 1천본을 심었다. 산림청·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하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주관하는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 나무심기 행사는 지난해 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보호구역 내 대형 산불피해지의 산림생태복원과정에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생태복원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기획한 행사이다. 경북도는 백두대간 315km, 낙동정맥 286km이며 전체 면적 70%가 산림지역이다. 산림용도인 경복이 지형과 식생, 건조와 강풍에 따른 기상학적 원인 등으로 산불에 특히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3월 울진은 대형산불로 1만 4천140ha의 산림피해를 입었다. 다



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울창했던 산림은 한 순간 잿더미가 됐고 주택 258동, 이재민 327세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지역 주민 일상을 송두리째 앓아간 절망 앞에서 그 동안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왔고 국민참여 기부자들이 직접 기부자의 숲 나무심기 행사에 참가해 산불피해 실상을 체험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한편, 경북도는 대형산불 피해지역인 울진군 산림(공유림, 사유림) 265ha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100억여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복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올해 울진군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타당성 평가 용역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생태복원 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복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한 순간에 잃어버린 소중한 우리 강산이 오늘 심은 나무들로 하루속히 복원돼 경북의 행복과 자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앞으로 경북의 산림을 잘 가꾸는 것은 물론 단순히 바라보는 산에서 소득,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는 보물산으로 만들어 경북도민은 물론 국민들이 건강한 삶과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손병복 울진군수, 경북 도민체육대회 울진군 선수단 격려 22~23일 종목별 경기장 찾아 선수단 및 관계자 격려

울진군 손병복 군수는 울진에서 열리고 있는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종목별 경기장을 찾아 경기에 출전하는 울진군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했다. 지난 22일부터 탁구 경기장을 시작으로 축구, 씨름, 배구 등 각 종목별 경기장을 방문해 열린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종합운동장을 방문해 육상 종목별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대회 관계자들에게도 대회 운영을 위해 애쓰는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힘든 훈련과정을 이겨내고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값진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며, 특히 부상 없이 경기를 마무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4월 2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종목별 경기를 치른 후, 4월 24일 울진종합운동장 폐막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도민체전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도민체전 경기장과 대진표, 기록 등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있다. 윤근수/기자



제4회 2023 영주

한국선비 문화축제

신바람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

기간 | 2023. 5. 5.(금) - 7.(일)

장소 | 소수서원, 선비촌, 선비세상 및 서천둔치 일원

주최 영주시

주관 영주문화관광재단

후원 중소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부산시,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국회 토론회' 개최

국가균형발전과 효과적인 금융중심지 육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부산 금융중심지 강화 방안을 논의

부산시는 내일(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희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주관하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국회, 부산시, 정부, 학계, 연구기관에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과 효과적인 금융중심지 육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부산 금융중심지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토론회는 개회사, 축사, 주제발표, 정책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주

제발표에서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부산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배근호 동의대학교 교수가 '정책금융기관 집적을 통한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정책토론은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장원찬 인하대학교 교수, 김용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성순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손성은 부산광역시 금융창업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이번 토론회는 그간 금융중심지의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부산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중진/기자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찾다!

2023. 4. 24. (월) 14시~16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김희곤

주관 부산광역시,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

좌장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발표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근호 동의대학교 교수

토론 장원찬 인하대학교 교수
 김용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성순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손성은 부산광역시 금융창업정책관

B U S A N

영주시, 한국선비문화축제 관련 행사 안전점검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 추진

영주시는 24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3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에 따른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영주경찰서, 영주소방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실무위원과 축제 행사주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행사 안전대책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심의했다.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공연법' 등에 따라서 축제·행사·공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조직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비상시 대응요령과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면밀하게 심의했다. 행사장 설치가 완료되면 현장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개폐막식 행사 및 퍼레이드 등 대형인파 운집예상을 대비해 안전대책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2023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영주시 순흥면 소수서원과 선비촌, 선비세

상, 서천 둔치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위해 장소를 서천둔치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주한국선비문화축제는 10년 만에 진행되는 퍼레이드 행사와 축제 장소의 이원화, 야

시장 운영 등 많은 것이 새롭게 시도된다"며 "안전사고 예방, 방역관리계획 등 즐겁고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사전 현장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 31억여 원 규모

10,260명에게 예천사랑상품권 30만 원 지급, 농민들에게 도움



예천군은 이달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상반기 농어민수당 31억여 원을 10,260명에게 30만 원씩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가구당 60만 원을 2회로 나눠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수당은 오는 8월 지급할 예정이다.

의성군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



의성군새마을회는 지난 22일 봉양면 생활체육공원에서 관내 기관·단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9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운동 제창 53주년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웃과 사회에 헌신·봉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새롭게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증서 수여, 새마을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따뜻한 경북교육의 비상을 위한 든든한 동행!

경북교육청, 제3기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구성 및 제1차 정기회 개최

경북교육청은 24일 오후 6시 '제3기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정기회'를 개최했다.

경북교육청은 24일 오후 6시 '제3기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정기회'를 개최했다.



외형-내실 다잡았다, '2023 대구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성료

구매-수출-채용-애로-시책까지 전국 최고의 기업종합지원 비즈니스 박람회로 위상 제고

국내 유일의 기업종합지원 박람회인 '2023 대구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며 18~19일 이틀간 일정을 마무리하고 성황리에 마쳤다.



대구광역시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구테크노파크(TP)가 주관한 '동반성장페어와 함께하는 2023 대구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는 기업 수요에 맞춘 내수진작, 수출판로, 인력채용, 애로·규제해결, 시책설명 등의 5대 핵심분야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진행됐다.

을 비롯해 총 104개사가 수요처로 참여하여 중소기업 198개사와 686건의 기술·구매상담을 통해 823억 원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정보·소통의 장이 됐다. 18일 열린 '기업지원시책 종합설명회'는 기업 관계자 200명을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생산성본부 등 10개 기관의 핵심 시책을 안내하고 개별상담을 통해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지역기업의 다양한 애로·규제 해결을 위해 대구광역시, 대구TP,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등의 지원기관들이 기업과 1대1 애로해결 상담 48건을 진행했다.

청송군 대표 캐릭터 '청이와 송이' 탄생

청송군은 캐릭터를 활용한 지역 홍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표 캐릭터 '청이와 송이'를 개발하고 군청 홈페이지와 청송새소식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부문 11년 연속 대상 수상, 도시브랜드 부문 4연속 대상 수상에 빛나는 브랜드 강자 청송에서 태어난 '청이와 송이'는 빨강고 노란 청송사과를 나타낸다.



제1회 영양군 반려동물체험·프로그램 행사 개최

청정 영양에서 반려동물과 신나게 놀아요(가칭)

영양군은 오는 5월 13일(토) 입암면 선바위공원 일원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체험·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기 동물보호소를 개소한 데 이어 올 상반기 중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하며 2024년에는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개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소위원회는 각 분야별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논의를 통해 교육정책 수립에 착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관련 교육정책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한편, 영양군은 지난해 유기·유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오도장 영양군은 "영양군도 요즘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반려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영양군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반려인과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봉화군 명호면, 찾고 싶은 명호면 만들기 환경정화 활동 펼쳐



봉화군 명호면은 17일부터 21일까지 낙동강 시발점 테마공원을 시작으로 예년길, 매호유원지와 명호댐 등 하천변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에는 명호면 생활개선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여성농업경영인, 한국자유총연맹 분회, 명호면 자율방재단, 적십자 봉사회 등 총 6개 단체 회원 150여 명이 정화 활동에 힘을 쏟았다.

각 단계에서는 정화 활동 기간 하루

씩 날을 잡아 하천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오물 등을 수거해 깨끗하고 쾌적한 명호면을 만드는 데 이바지했다.

정규하 명호면장은 “생업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단체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명호면을 만들어 가는 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사

경북도, 콘텐츠·기술혁신기반 메타버스 세계가 현실로 다가와

경북도, 선도기술·콘텐츠 개발지원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박차

경북도는 '2023 메타경북 얼라이언스 프로젝트'를 운영 지원사업'공모를 통해 메타버스 핵심기술 및 콘텐츠 개발 지원을 위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 메타경북 얼라이언스 프로젝트를 운영 지원사업은 민관 협업 메타버스 융합특화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지정과제(1건)와 자유과제(4건)로 나눠 추진하며, 공공분야 등 5개 분야로 진행된다.

공모분야는 △(공공분야) 출장증명 NFT 서비스 개발(지정) △(문화·관광분야) 메타버스 기반 한류 문화관광 서비스 개발(자유1) △(산업분야) 메타버스 기반 산업융합 서비스 개발

(자유2) △(보건복지·의료분야) 메타버스 기반 복지·의료 서비스 개발(자유3) △(공공분야) 메타버스 기반 공공콘텐츠 서비스 개발(자유4) 등 5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24일부터 내달 22일까지며, 메타경북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서류심사(1차)를 거쳐 발표심사(2차) 후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1건, 최종 5건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원 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경북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과 연동해 운영할 예정이다.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결과

물을 공유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국비 매칭사업 등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경북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은 기술개발 등 메타버스 특화 서비스 개발과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있다”며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메타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또는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윤근수기자



구분	내용
사업명	2023 메타경북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기간	2023.4.24(수) ~ 5.22(목) 30일간
대상	경북 소재 중소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창업보육센터, 예비창업팀 등
지원대상	1. 지정과제: 출장증명 NFT 서비스 개발(지정) 2. 자유과제: △(문화·관광분야) 메타버스 기반 한류 문화관광 서비스 개발(자유1) △(산업분야) 메타버스 기반 산업융합 서비스 개발(자유2) △(보건복지·의료분야) 메타버스 기반 복지·의료 서비스 개발(자유3) △(공공분야) 메타버스 기반 공공콘텐츠 서비스 개발(자유4)
지원규모	최대 5천만원 내외의 사업비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문의처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 (053-650-1111)

권기창 안동시장, 日 교류도시 방문 '문화·관광 교류 물꼬 튼다'

일본 사가에서, 가마쿠라시, 교토시 방문

안동시 대표단이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일본 교류도시인 사가에서, 가마쿠라시, 교토시를 방문해 본격적인 문화교류에 나선다.

방문단은 먼저 오테 파트너시티 체결 10주년을 기념해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를 방문, 교류협력 및 교류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어 주요 교역 문화·관광정책 관련 분야에 대한 선진지견학을 각 지자체 협력하에 실시할 예정이다.

26일에는 세계역사도시연맹 회장 도시자 연맹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는 교토시를 방문해 2022년에 개최된 『제18회 세계역사도시회의』최종보고와 함께 기념 화보집을 전달한다.

27일에는 자매도시인 야마가타현 사가에서를 방문해 2024년『자매도시

50주년 기념식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50주년 기념행사 등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일본방문 기간 중 하천재생사업 사례인 '수도(水都) 오사카 재생사업'현장 답사, “교토시 세계유산 MICE 산업 활용사례”, “교토 고가옥 마차야(町家) 활용 및 재생사업” 등 안동시 문화·관광정책 관련 분야에 대한 선진지견학을 각 지자체 협력하에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일본방문을 통해 교류도시 간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다방면으로 교류를 확대 추진할 것이며, 문화관광 분야 선진 사례를 안동시에 접목해 국제 관광도시로 거듭날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올 10월에



개최되는 '제10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과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을 홍보하고, 각 도시 대표단들을 공식 초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현재 일본(사가에, 가마쿠라, 다카야마), 중국(핑dingshan,

윤근수기자

대구 남구, 대구 최초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대구에서 최초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남구에 거주하는 우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입국·체류하는 외국인을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여 생활인구 확대 및 경

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구 남구가 대구에서 유일하게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일정 요건(거주, 학교, 취업)을 갖춘 우수인재 외국인에게 5년간 인구감소지역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비자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초청도

가능하며, 이와 함께 지역에서 계속 일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 정착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희망자는 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여 5월부터 9월까지 남구청 미래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 사업으로 인구 증가는 물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며,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남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영주시, 세계인과 함께 '지구의 날' 캠페인 팸투어 진행

22일 지구의 날, 15개국 50여명 소백산 '줍깅 캠페인' 참여

영주시는 국립공립공단 소백산생태탐방원과 함께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15개국 40여 명의 외국인을 초청해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지구의 날 캠페인 팸투어'를 진행했다.

'지구의 날'(매년 4월 22일)은 민간 운동에서 출발해 최근에는 15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2009년부터 '지구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하고, 야간 소등행사 등 다양한 환경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환경 캠페인은 영주시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외국인들을 영주 소백산으로 초청해 '줍깅'을 통해 환경 보전의식도 함양하고, 지역의 대표 자연관광자원인 소백산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줍깅은 줍다와 워킹(walking)의 합성어로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은 페이스북(Facebook) 내 'Exploring National Parks in Korea'라는 그룹을 통해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 행사 1개월 전에 신청이 마감됐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 '줍깅' 환경정화 활동 △ 캠페인 활동 사진 SNS 게시 이벤트 참여 △일반



등산객 대상 '지구의 날' 홍보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슬로베니아에서 온 참가자 데니스(남, 34세)는 “공원 직원들과 함께 산행을 할 수 있어 편안하고 즐거웠으며, 글로벌 환경 캠페인에도 참여할 수 있어 아주 의미있는 하루를 보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정교완 영주시 관광개발과장은 “지구의 날 팸투어를 적극적으로 운영

해 준 국립공원 소백산생태탐방원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영주시가 환경운동 동참하고 소백산을 전 세계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립공원과 상호협력력을 통해 영주시를 찾는 외래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2023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 성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

공유 자전거 전시관, 지자체 20곳 자전거길 전시관은 방문객 발길 끊이지 않아

경북 경주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된 '2023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경주시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황성공원 일원에서 '라이딩 경주시! 천년의 시간을 누비다!' 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자전거의 날은 자전거 타기 좋은 4월과 두 바퀴를 상징하는 22일이 만나는 주간에 개최되며, 지난 2010년 6월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행사기간 동안 어린이와 시민 등 1500여명이 각 프로그램 별로 참여해 생활 속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를 함께 타고 마음껏 즐겼다.

행사는 21일 오전 식전공연, 안전발대식 등의 기념식과 자전거 대행진을 시작으로 이를 간 자전거 산업전, 두 바퀴로 누비는 경주(역사탐방), 그림그리기 대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기념식은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앞 야외무대에서 주낙영 시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 300여명이 참석해 청소년 8명에게 안전모를 전달하며 타실라 자전거를 탑승해 행사 슬로건 표출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어 내빈, 동호인, 시민 등이 참여해 30분 간 황성공원 일구~계림중사



거리~축구공원 삼거리~황성공원 코스로 한 바퀴(5km)를 도는 대행진을 진행하며 지구사랑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내체육관에서는 이를 간 국내 자전거 산업육성과 탄소중립 시대의 자전거 중요성 중점 홍보를 위해 역사관, 정책관, 공유자전거, 산업관 등 50개 부스를 선보이며 자전거 산업전이 운영됐다.

특히 국내 대표 자전거 기업인 삼천리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문기업 벨로스타, 모덴 등이 참여한 완제품 자전거 부스에는 생활형 자전거부터 친환경 전기자전거까지 다양한 제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어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또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전거 전시관, 20여 개 지자체의 아름다운 자전거길 전시관 등은

전국 지자체 자전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더불어 인터넷 및 현장 신청자 400명에 양일 간 청성대, 동궁과월지, 분황사 등 12km 역사 유적지를 자전거로 탐방하면서 코스 완주자들에게 코스 완주증과 소정의 기념품도 지급했다.

행사 둘째 날인 22일에는 황성공원 내에서 경주미술협회 주관으로 자전거의 날 기념 그림 그리기 대회를 실시했다. 시상은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4개 부로 나눠 상장과 부상으로 자전거 안전용품 42명에게 전달했다.

이밖에 부대행사로 이를 간 행사장 일원에는 지역 예술인의 버스킹, 자전거 안전교육, 발전기 체험, 얼굴그림, 풍선아트, 어린이 자전거 안전 뮤지컬 등이 연이어 개최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풍성했다.

아이들은 자전거 안전교육 뮤지컬을 통해 즐겁고 자연스럽게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를 몸소 터득하고 안전의식을 습득했다.

주낙영 시장은 “자전거는 탄소중립 시대의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국민의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시에서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영암군, 농식품 산업 비전과 전략 수립 “쟁걸음”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와 간담회 및 협의체 구성

영암군이 미래 영암 농업의 희망인 농식품 산업의 역량 강화와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다양한 혁신시책을 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농식품 산업의 혁신적인 도약을 위해 관련 산업 전반의 애로(건의)사항을 집중청취하며 수요자 중심 시책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군은 지난 20일,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영암 농식품 산업의 발전방향 모색과 업체 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14개 농식품 업체가 참여하여 업체별 현황을 소개하고 군수와의 대화를 통해 사업체 운영에 따른 현장의 건의 사항과 농식품 발전 방안 등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생산 제품의 가치향상 방안 마련 ▲디지털 청년근로자 연령 상향 조정 ▲농산물 전문 벤더사 유치 및 전문 벤더 육성 교육 실시 ▲농번기 인력 수급 대책 ▲업체별 자동화 시설 설치 지원 ▲농식품 전시회 또는 해외 박람회 참여 홍보 ▲영암 특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연구 지원 등이다.



특히 간담을 통해 향후 농식품업체 간 정보교류와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해 지역 농식품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승희 군수는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고 일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산업현장에서 정책의 업그레이드를 바라는 만큼 농산물 유통 및 먹거리, 청년정책 분야 등과 다양하게 연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특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연구지원에

대한 의견 등도 귀담아 듣겠다. 오늘날의 의견을 중심으로 농식품 업체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새로운 차원에서 모색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농식품 분야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군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농식품 산업 육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며 유통 마케팅 분야도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현/기자

‘강진 월출산 봄소풍 축제’ 구름 인파 몰렸다

풍경·이야기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피크닉 명소 자리매김

“강진다원부터 백운동 원림, 경포대, 여기에 아름다운 꽃까지, 대한민국에 피크닉 장소로 강진 월출산 일대를 대신할 곳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추억 안고 돌아갑니다.”

지난 21일부터 강진녹차밭 일원에서 열린 ‘강진 월출산 봄소풍 가는 길’ 축제가 3일간의 차(茶)빛 힐링을 뒤로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강진군에 따르면 봄소풍 축제 현장에는 관광객들이 대거 운집해 행사장을 가득 메우는 대성황을 이루고, 강진 월출산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풍경과 콘텐츠를 즐겼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던 축제장은 파란 하늘과 짙은 베이지색 이마가 흰하 드러난 듯한 월출산 바위, 광활한 연두색 녹차밭이 어우러지며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했다. 관광객들은 월출산의 절경을 배경으로 10만평 녹차밭이 뿜어내는 싱그러움과 축제장 곳곳에 핀 유채꽃 물결에 취해 봄날의 여유와 낭만을 즐겼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가월기(이야기가 가득한 월출산 기행)’ 트레킹이었다. 민선 8기 들어 새롭게 추진한 콘텐츠로, 월출산에 깃든 다양한 스토리를 알고 나면 향후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는 판단하에 기획했다.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가 직접 동행해 월출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 경포대부터 눈부신 초록빛의 녹차, 비밀의 숲으로 불리는 백운동 원림, 다산 정약용 선생과 제자들이 재배한 전통 녹차, 한국 최초로 차 상표(백운옥판차)를 생산한 이한영 선생까지 월출산이 품고 있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줘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었다.

‘이가월기’에 참여한 관광객들은 한결같이 “자연이 건넨 선물을 평소 몰랐던 이야기로 흥미롭게 풀어낸 축제 콘셉트가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된 것 같다”며 “강진 월출산의 비경은 물론, 주변의 숨어있던 힐링 명소를 만날 수 있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간다”고 호평했다.

또 신선한 바람과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샌드위치와 컵 과일, 찹떡 등을 즐길 수 있는 ‘어느 봄날의 브런치’ 프로그램은 축제 며칠 전 이미 매진돼, 축제장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밖에 드론 축구, 대형 젠가놀이, 페이스 페인팅, 청자 성형, 나만의 화전 부치기 등 어린이 맞춤형 콘텐츠부터, 흐르는 물에 찻잔을 띄우고 시를 읊는 유상곡수, 월출산 비경과 함께한 다도 체험, 천황봉 스탬프 인증 이벤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현장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강진원 군수는 “그동안 코로나19와 지는 일상에 지친 관광객들이 잠시 쉬어가며 행복을 재충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축제를 준비했다”면서 “강진 월출산과 일대는 사계절 언제 찾아와도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는 만큼, 꼭 다시 방문하셔서 소중한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운호/기자

‘지역경제 활력 UP’ 나주시, 수의계약 낙찰률 3% 상향

2000만원 이하 낙찰률 90%→93%, 공사·물품·용역 동일 적용

전라남도 나주시가 건설공사 등의 수의계약 낙찰률을 높여 지역업체 경영 활성화를 도모한다.

나주시는 4월 24일부터 2000만원 이하의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낙찰률을 3% 상향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여기에 공사, 용역, 물품별 상이했던 낙찰률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소비심리 위축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로 지역업체의 실질적 지원은 높이고 부담을 완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공사·용역·물품 낙찰률은 98%, 500~1000만원은 96%, 1000~1500만원은 94%, 1500~2000만원은 93%의 낙찰률을 각각 보장받게 된다.

2000만원 이하 공사를 계약할 경우 계약금액이 현행 1780만원에서 변경 후 1860만원으로 80만원이 오른다.

2000만원 이하 전체 수의계약 중 95% 이상이 지역업체로 선정되고 있어 낙찰률 상향을 통해 연간 16억원 규모 예산이 시중에 풀리면서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시는 이와 함께 1000만원 이상 관급공사, 물품, 용역의 계약보증금도 현행 7.5%에서 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계약보증금 특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낙찰률 상향과 함께 지역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 시 평균 낙찰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파악

돼 이뤄진 조치”라며 “낙찰률 상향과 계약보증금 하향을 통해 관급사업의 품질 확보와 참여도를 높여 지역 경제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장흥군, “정남진에서 중강진까지” 통일기원 행사 열어

평화통일 퍼레이드 나선 70여대 오토바이 눈길

장흥군이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통일기원 행사를 열었다.

“정남진에서 중강진까지”란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22일 장흥군 탐진강변과 정남진 전망대에서 펼쳐졌다.

군은 정전 70년을 맞아 ‘통일 시작의 땅, 정남진 장흥’에서 하나된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통일기원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3일 열리는 ‘제17회 정남진장흥 전국 마라톤 대회’의 성공개최도 함께 응원했다.

탐진강변에서 풍물놀이로 문을 연 행사는 평화 비둘기 풍선 날리기, 박터트리기 등 통일기원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이날은 통일기원 퍼레이드에 나선 70여대의 오토바이 행렬이 눈길을 끌었다.

오토바이 퍼레이드단은 안전한 도로운행을 고려해 소그룹으로 나누어 탐진강변에서 정남진전망대를 왕복했다.



장흥군은 바이크 라이딩 속도를 60km/h로 제한하고 안전거리 확보, 소음 규정 준수 등을 통해 안전하게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정남진 전망대 광장에 집결한 300여명의 참석자들은 통일기원 팻말과 한반도기를 흔들며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졌다.

장흥 어랑어랑예술단 어린이 합창

단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제창을 이끌며 이날 통일기원 행사의 퍼날레를 장식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정남진 장흥은 한반도 통일 시작을 땅”이라며, “국토 최남단에서 시작되는 평화통일의 훈풍이 가장 추운 지역인 중강진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제25회 2023

함평 나미야 대축제

봄을 여는 소리, 함평나미야 대축제
 뚝뚝 나미야 일어나! 봄이야!

4. 28. (금) - 5. 07. (일)
 10일간
 함평엑스포공원 일원

주최 | 함평군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주관 | 함평축제관광재단

농림축산식품부,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국도로공사

환경부, 전라남도교육청, KORAIL

예산군, 축산물 위생분야 단속 및 한우 유전자 검사 추진

예산군은 학교급식 및 최고기 취급 업체에 대한 부정·불량 축산물 단속 및 무작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믿고 먹는 최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충남도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축산물 위생분야 단속 및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포장 처리업소, 식육축산판매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주요 점

검사항은 △소비기한 위·변조 판매 여부 △포장용 재분할 포장 시 소비기한 변경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정적 기재 여부 △식육 매입·매출에 관한 서류작성 여부 △영업자 등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한우 유전자 검사는 관내 자체 직영 급식학교 및 최고기 취급업소 13곳(학교3, 판매업소 10)을 대상으

로 추진되며, 시료를 채취해 한우 유전자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동시에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부정 축산물에 대한 집중감시 및 단속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해 관내 축산물의 건전한 생산·유통·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전북도, 동물용의약품'품질관리·유통질서'확립 추진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 점검... 오·남용방지 및 유통질서 확립

전북도는 4월 24일 ~ 5월 12일까지 3주간 도내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 및 의약품 수거·검정을 통해 안전한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판매업 시설의 적합여부, ▲수의사 처방제 준수여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임의 판매 여부, ▲약사·수의사의 동물용의약품 관리 실태, ▲무허가·유기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여부 등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은 도내의 허가받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에서 유통 중인 항생치료약제(80건), 일반화학제제(40건) 등 총 120건을 수거 후 유효성분의 함량미달 여부 등에 대한 효능·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 중 반려동물용 의약품 24건(항생치료약제 16, 일반화학제제 8)을 포함해 실시하며, 이는 최근 반려동물시장(전체 동물시장의 20%) 및 반려동물용의약품(전체 동물용의약품의 39%)의 품목허가 증가로 반려동물용의약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수거검사 계획에 반영

해 추진하게 됐다.

이에 약사감시에 따른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처분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희선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부적합 의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축산농가 및 반려동물 보호자가 동물용의약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 도살”...경기도 특사경, 파주시 육견농장 현장 적발

도 특사경 민원 제보와 파주시 수사 의뢰를 통해 21일 개 도살 불법행위 현장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한 파주시의 한 육견 농장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수사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한 후 두 번째 현장 적발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1일 새벽 파주시 적성면의 한 육견 농장을 잠복 수사에 개를 사육하던 육견주 A씨가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는 현장을 급습했다. 해당 농장은 육견 60여 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14마리를 발견했다.



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 특별사법경찰단에는 누리집과 유선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제보들이 접수됐다. 파주시 육견 농장 사례도 도민들의 제보 중 하나였다. 도는 지속해서 접수되는 제보에 대해 추가 현장 수사도 추진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 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동물 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며, 제보할 때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팀’도 신설해 동물 학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경기도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조혜영기자

대구광역시,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무신고 숙박업소 3개소 적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무신고 숙박업소 3개소 고발조치

대구광역시는 민관합동 단속반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무신고 숙박업소 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했다.

대구광역시는 최근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무신고 불법 숙박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시 위생정책과 및 민생사법경찰과, 구·군, 대구경찰청 및 숙박협회와 합동으로 8개 반 33명의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4월 3일부터 계도활동과 단속을 실시했다.

대구광역시는 실효성 있는 계도를 위해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집중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에어비앤비에 게시된 무신고 의심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메시지를 발송했으며,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계도 공문과 안내 방송문을 일괄 발송했다.

민관합동 단속반은 사전 계도에도 불구하고 무신고 숙박업업을 지속한 업소를 중점 점검해 3개소(중구 1, 동구 2)를 고발조치했다.

현장 단속 결과 동구의 한 오피스텔



에서는 한 명의 영업주가 다수의 객실을 이용해 무신고 숙박업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 거래량 감소로 오피스텔 등의 공실이 많아지면서 불법 숙박영업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이다.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해외사래의 면밀한 검토와 기존 숙박업계의 협의를 통해 공유숙박을 합법화하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단속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성용경 대구광역시 시민안전실은 “이번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에어비앤비 내 무신고 숙박업소 게시물이 많이 감소하여 가시적인 계도 효과가 상당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건전한 공정한 숙박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효성중공업,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 견본주택 4월 21일 오픈

5월 2일 특별공급, 3일 1순위 4일 2순위 청약... 1·2블록 중복 청약 가능

지하 2층~지상 29층, 2개 블록, 전용면적 74~100㎡, 총 992가구 대단지

내부 특화설계, 자연 친화적 조경 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첨단 시스템 등 적용

효성중공업은 경기도 안성시 공동읍 진사리 일원, 평택대학교 바로 앞에 조성되는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가 4월 21일(금)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2개 블록 12개 동, 전용면적 74~100㎡, 총 992가구(1블록 355가구, 2블록 63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1블록은 전용면적 74㎡ 92가구, 84㎡A 105가구, 84㎡B 121가구, 100㎡ 37가구, 2블록은 전용면적 74㎡ 161가구, 84㎡A 293가구, 84㎡B 148가구, 100㎡ 35가구로 공급된다.

청약일정은 5월 2일(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수) 1순위 청약, 4일(목) 2순위 청약을 받는다. 1블록과 2블록은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1블록 당첨자 발표는 11일(목)이며, 정당계약은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진행된다.

2블록 당첨자 발표는 12일(금)이며, 정당계약은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진행된다.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는 '해링턴

플레이스' 브랜드 명성에 걸맞은 상품성이 기대된다. 남향 위주의 동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또한 알파룸, 드레스룸, 팬트리, 3면 발코니 등 집안 곳곳에 수납공간(일부 타입)을 마련해 공간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자연 친화적 설계도 돋보인다. 단지 내에는 넉넉한 조경공간과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했다. 물놀이터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부터 해링턴 가든, 주민운동시설 등 어른들이 휴식 및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도 마련했다. 세대 내에는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LED조명과 친환경적인 세라믹 타일 및 가구, 공기청정 및 주방연동 환기 시스템 제공을 통해 입주민들이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 썼다.

일상에 특별함을 더해줄 독보적인 커뮤니티시설도 마련했다. 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스쿠림골프연습장, 샤워실(남·여), 락카룸(남·여), 썬큰과 연계되는 오픈카페, 주민카페, 문화강좌실, 주민회의실,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스터디·오피스존 등 다양하게 들어선다. 특히 가족은 물론 외부 손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3개소나 마련된다. 첨단 시스템도 적용된다. 스마트 IoT 시스템을 통해 외부에서도 스마트폰 전용앱을 통해 세대 내 에너지·조명·난방·방범·환기 등을 손쉽게 제어 가능하다. 원패스키만 내리고 있으면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동현관 출입 및 엘리베이터 호출이 가능한 원패스 시스템도 제공한다.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는 안정과 평택을 잇는 공동읍에 위치해 교통·교육·자연·편의시설 등 두 지역의 풍부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교통호재와 인근 평택 소사·용죽·현충·용이지구 등의 주거지 조성 및 인프라 확충이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한편,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는 계약금 정액제 1,000만원(분납), 중도금 60%에 대해 전액 무이자 대출 혜택을 마련했다. 정당계약 기간 내 계약 고객에 한해 시스템 에어컨을 무상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685-8번지에 위치한다.

문의 : 031-658-8000

양시현기자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

■ 상기 CG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주변건물 및 지형 등은 임의로 조정하여 실제와 다르며, 건물의 배치, 옥상, 주차장, 외부주차장, 배수관망, 단지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포장계획, 관공초지, 디테일 등은 축적결과 및 현장여건, 설계변경 및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의해 실제 시공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선의 경계선은 설계변경에 의해 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CG에 표현된 계획도로 및 녹지 등은 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각종 안·허가 과정 및 해당 관청, 지자체, 시업주체 또는 기타 관계기관의 사업추진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엠제트(MZ)세대 서포터즈의 젊은 감각으로 박람회 적극 홍보

천안시가 올해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독립기념관 일원에서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하는 가운데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박람회를 위해 엠제트(MZ)세대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심분 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한류 관광의 메카 '천안'을 목표로 열리는 이번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는 10~30대를 주요 대상으로 개최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30일부터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지역 주변 대학교와 청소년수련관 등과 협력으로 서포터즈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직접 천안과 아산에 있는 12개 대학교 학생처장과 만나 박람회를 홍보하고 새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모집활동을 진행했다. 대학교 동아리 모집 홍보 기간에 단국대학교, 백석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부스 운영 및 포스터 배부 등으로 140여 명의 지원을 받아 120여 명이 서포터즈로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시는 지역 내 청소년수련관인 천안시청소년수련관(관장 최인선),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관장 윤여승)과 청소년·유학생 모집 및 운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번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서포터즈에 최종합격한 120여 명의 단원은 다양한 경험과 특기로 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 소통망 서비



스(SNS)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 이력을 가진 단원을 비롯해 외국어, 영상 제작 등에 능한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서포터즈가 박람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2차례의 사전 교육을 실시해 서포터즈 활동 계획 안내, 역량 강화 강의 등 다채롭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 팀 결속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팀별 그룹 형성 및 팀장 선출을 시행했고, 오락 활동과 연계해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소속감 부여 및 천안 K-컬처박람회 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민 서포터즈 단원은 "두 번의 사전교육을 통해 천안 K-컬처 박람회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앞으로 박람회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박상돈 시장이 직접 120여명의 서포터즈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책임감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활동 추진을 위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했다.

시는 이날 서포터즈 단원들에게 제작한 공식 서포터즈증(ID카드)과 제작 배지, 소정의 기념품을 배포해 서포터즈로서의 유대감과 자부심을 심어줬다. 향후 서포터즈는 5월 5일 박람회

100일을 앞두고 'D-100 출범식' 참여를 시작으로, 박람회 홍보를 위한 카드 뉴스 제작,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천안시민을 비롯한 국내외 관람객 유치 활동을 펼쳐게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서포터즈가 젊은 감각과 열정을 충분히 발휘해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K-컬처 박람회를 통해 한류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천안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주축이 돼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천안시는 더욱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원강수 원주시장, 시의회에 비상경제 예산안 통과 협조 요청

원주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하여 원주시의회에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예산안은 비상경제 예산안으로 불릴 정도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 35억 원, 원주시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89억 원,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60억 원 등 원주시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분야에 재정을 집중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에 처

한 지역경기 대응에 실기할 경우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이번 회기 내 예산안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비상경제 예산안은 원주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며,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되어야 추경이 지역경제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주시의회도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 회복과 원주시민을 위하여 예산안 심의에 초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강릉 산불 피해에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 SNS로 인증하세요

#함께강릉, #착한여행, #강릉여행, 방문 SNS 인증 포토존 이벤트 실시



강릉시는 주요 관광지인 경포 인근을 휩쓸고 간 산불로 인해 위축된 관광수요를 회복하고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관광객이 함께하는 "강릉 방문 SNS 인증 포토존 이벤트"를 실시한다.

경포 해수욕장 인근의 산불 피해 현장 환경을 정화하고, 해변 중앙통로에는 "강릉여행이 최고의 자원봉사입니다", "강릉여행은 사랑입니다" 등의 응원 메시지가 담긴 포토존 설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관광 집중 홍보 기간인 6월 말까지 지역 주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착한여행'에 많은 관광객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강릉 방문 SNS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포토존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고 강릉관광 응원 해시태그(#함께강릉, #착한여행, #강릉여행)

를 게시글에 함께 기재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포토존 응원 메시지 아래서 찍은 인증샷들을 온라인에 공유함으로써 산불 피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고 지역 주민들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한 참가자 일부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며, 당첨자 발표는 SNS를 통해 개별 전달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산불 피해 주민들에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강릉을 찾아주시고, 관광도시 강릉의 매력을 홍보해주시는 것"이라며, "이번 이벤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식기자

태백시, 제101회 어린이날 큰잔치 '날아라 새둥아!' 개최

태백시는 오는 5월 5일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관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큰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는 방정환 선생님이 결성한 소년운동협회에서 1923년 어린이해방선언을 발표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1주년이 되는 해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어린이날 행사가 개최되지 못해 지역주민과 부모님, 어린이들의 아쉬움이 컸던 만큼,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놀 거리, 즐길 거리를 준비한 만큼 어린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한다.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어린이날 큰잔치에는 태백시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합창단, 키즈벨리댄스팀의 축하공연과, 기념식, 신나는 체험마당, 20개의 다양한 부대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안전체험관에서는 어린이와 부모님을 위해 이날 하루 이용료를 12,000원에서 2,000원으로 대폭 할인할 예정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아이들에게 선물 같은 어린이날이 되길 바라며, 이번 어린이날 큰잔치를 통해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봄을 만나, 산나물 파티!

제 18회 영양 산나물축제

YEONG YANG WILD EDIBLE GREENS FESTIVAL

기간 5월 11일(목) ~ 5월 14일(일)

장소 영양읍내 및 일월산 일원

주최 | 영양군 주관 | YFTC 영양축제·관광재단



제19회

영산포



홍어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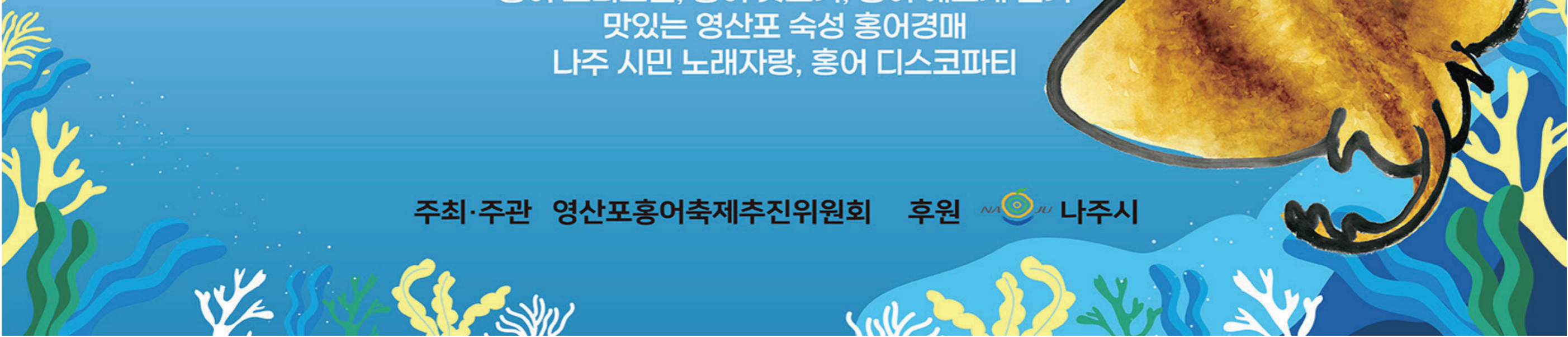
5. 5.[금] ~ 5. 7.[일]
 영산포 홍어거리 일원

주요 프로그램

홍어 요리교실, 홍어 맛보기, 홍어 예쁘게 썰기
 맛있는 영산포 숙성 홍어경매
 나주 시민 노래자랑, 홍어 디스코파티



주최·주관 영산포홍어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나주시



2023 부산슈퍼컵 국제요트대회 개최!



국제요트대회 외에도 시민관광형 승선 및 해양폐기물 업사이클링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열려

부산시는 오는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해양수도 부산이 자랑하는 아름다운 수역만 일원에서 '2023 부산슈퍼컵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부산슈퍼컵 국제요트대회'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크루저 요트대회로, 해운대와 광안리해수욕장, 이기대공원 등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에서 수십 대의 요트가 한 번에 레이스를 펼치는 장관을 볼 수 있다.

이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해 10개국 32개 팀 약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4월 27일 사전 등록을 시작으로 28일부터 3일간 2개 종목에 대해 열린 레이스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여러 가지 부대행사도 마련돼 부산 시민들에게 요트의 대중화는 물론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해양폐기물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부스를 운영한다. 폐제일 업사이클링,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등을 소개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이 경기를 좀 더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시민관광형 승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민관광형 승선은 부산슈퍼컵 국제요트대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신청해 참가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슈퍼컵 국제요트대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입어 부산 시민들에게 역동적인 해양레저 볼거리를 제공하고 국제관광도시로서 한층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부산을 대표하는 대회로서 명성과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용인특례시에서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대회 '슈퍼레이스' 화려한 막올려

이상일 시장, "8월·11월 용인에서 펼쳐지는 나이트 레이스 등에도 많은 관심 가져달라" 당부

모터스포츠 메카로 평가받는 용인특례시에서 지난 22일과 23일 국내 최대 규모의 모터스포츠 대회인 '2023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대회' 개막전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6개 클래스에 총 8개팀 120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대회 관계자를 포함해 약 10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참여했으며, 모터스포츠에 관심 있는 관람객 2만 5000여명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다.

개막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대회 후원사인 CJ그룹 마케팅 총괄 경국호 부사장, CJ대한통운 커뮤니케이션팀 허신열 경영 리더, 슈퍼레이스 김동빈 대표이사,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임인석 운영총괄 등 대회 운영진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23일 개막식 현장을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대회 운영진과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내 기업 입주 여건과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른 용인의 미래 비전을 설명했다.

또 카레이싱을 비롯한 스포츠 발전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용인의 스포츠 인프라를 다방면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막식에서 이 시장은 이 대회의 메인 클래스이자 아시아 유일의 스톡카1) 레이싱인 슈퍼 6000 클래스 경기 차량을 전문 드라이버와 시승해 카레이싱의 색다른 묘미를 경험했다.

이 시장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모터스포츠 대회인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2023' 시



▲삼성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3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슈퍼 6000 클래스 2라운드 결승 1,2,3위를 차지한 선수들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즌 개막을 우리 용인에서 하게 돼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챔피언십 슬로건이 '슈퍼 익사이팅, 슈퍼레이스(SUPER EXCITING, SUPERRACE)'이라고 들었는데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 정말 익사이팅한 레이스를 펼쳐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에서 오는 8월 국내 최초 나이트 레이스와 썸머 페스티벌이 펼쳐지고 11월에는 마지막 7, 8 라운드 경기가 열리는 만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면 좋을 것 같다"며 "모터스포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대회인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슈퍼 6000 클래스 2라운드 결승 경기를 지켜보고 난 뒤 우승을 차지한 이찬준(엑스타 레이싱 소속) 선수와 2위를 차지한 정의철(넥센-볼가스 모터스포츠 소속) 선수, 3위에 입상한 황진우(준퍼티드 레이싱 소속) 선수에게 시상상을 했다.

한편, 이번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2023'은 22일 용인특례시에서 1, 2라

운드 경기를 시작으로 총 8개 라운드로 진행된다.

오는 6월에는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3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고 7월에는 강원도 인제군에서 4라운드 경기가 열린다. 8월에는 용인에서 5라운드 나이트 레이스와 썸머 페스티벌 등이 열리고 10월에는 다시 영암에서 6라운드 경기가 펼쳐진다.

11월 용인에서 마지막 7, 8라운드와 시상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조혜영/기자

경남도, 오는 6월 2023년 경남 관광일자리 잡페어 개최

4월 17일부터 잡페어(JOB FAIR) 참가자 및 참가기업 모집

경남관광재단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오는 6월 1일부터 2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경남 관광일자리 잡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잡페어는 워드 코로나와 함께 여행수요는 점차 살아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업계를 지원하고자 마련한 구인·구직 행사로 도내 20여개의 관광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본 행사는 구인구직 상담부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 관광산업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본 행사를 통해 기업은 유능한 인재를 적기에 채용하고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취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잡페어 참가대상 기업은 도내 소재 관광사업체와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및 관광 관련 아이템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로 참가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잡페어 현장에서 경남 도민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2인까지 2개월간 월 180만 원을 지원하고, 이후 5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추가로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이번 행사는 관광 분야 구직을 희망하거나 관광 분야 취업에 관심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에 면접을 신청하면 기업과 우선 면접을 통해 면접을 지원하며 현장방문 시 경품 증정 등 혜택이 주어진다.

경남관광재단 관계자는 "2023년 경남 관광일자리 잡페어는 관광기업 취업을 꿈꾸는 지역의 미래인재들과 지역 관광기업 모두에게 구인·구직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열린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2023 경남 관광일자리 잡페어 JOB FAIR poster with QR code and event details.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그랑프리 우승 쾌거!

Sing Together K-Voice 파이널 성황리 마쳐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성공 개최 기원 프로젝트인 'Sing Together K-Voice' 파이널 대회에서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참가팀 최고의 영예인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2일(토) 오후 2시 강릉교회 TG홀에서 열린 파이널 대회에는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해 권역별 우승팀과 심사위원 추천팀 총 6개 합창단이 참가하여 열린 경연을 벌이며 축제의 장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1996년 1월에 창단했으며, 2002년 부산 세계합창대회 한국 최초 어린이 부문 금메달을 수상하고 2022년 제4회 제주 세계청소년합창페스티벌&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은 팀이다.

지난 2월 25일 강릉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대전 등 5개 도시를 순회하며 진행했던 'Sing Together K-Voice' 프로젝트는 이번 파이널 대회를 끝으로 60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심상복 운영추진단장은 "봄철 행사에 참가한 합창단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큰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수원시, 4월 27일 '제1회 수원 가드닝의 날-사이좋게 꽃' 개최

'손바닥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가 4월 27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인계동 수원시청소년문화공원 중앙 잔디광장에서 '제1회 수원 가드닝의 날-사이좋게 꽃'을 연다.

'함께하는 마음, 함께하는 가드닝'을 주제로 열리는 제1회 수원 가드닝의 날은 정원놀이 체험, 산림치유 체험, 손바닥정원 체험(사전 예약) 등으로 진행된다.

정원 전시장과 가드닝(정원 관리) 상담소를 운영하고, '새빛수원 손바닥정원단' 발대식도 연다. 정원 전시장에는 정원 식물·시설을 전시하고, 가드닝 상담소에서는 시민들에게 정원 관리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분갈이를 지원한다(사전예약 선착순 50명). 수원시는 시민 주도로 도시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 공동체, 자투리땅, 유희지 등 도시의 빈 곳을 찾아내 시민 공동체가 꽃과 나무 등을 심어 정원을 만드는 것이다. 함께 만드는 '열린 정원'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손바닥정원 사업에 참여할 '새빛수원 손바닥정원단'을 모집했고, 현재 712명이 가입했다. 손바닥정원단은 주민들의 손바닥정원 조성을 지원하고, 정원 관리, 정원 관리 교육 프로그램 진행, 손바닥정원 홍보 등 활동을 한다.

조혜영/기자

대전곤충생태관, 나비 특별기획전 개최



한살이 과정(알→애벌레→번데기) 및 나비와 나방의 더듬이 구조 등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도심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평

소에는 보기 힘든 다양한 나비를 보고,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Poster for the 1st Suwon Gardening Day - '사이좋게 꽃' (We are good together, flowers) event, including date, time, and location.

Goyang

GOYANG SPECIAL CITY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고양특례시